

조기위암환자에서 소절개창을 통한 근치적 위아절제술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

허 훈, 김 욱, 전해명, 김응국

(배경 및 목적) 일반적인 위암수술은 검상돌기에서부터 제대부 아래까지의 긴 절개창을 통해서 위절제 및 주변 림프절 광청술이 시행되어 왔다. 하지만 주변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적은 조기위암등에 제한된 위절제 및 림프절 광청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인정받으면서 덜 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한 위절제술등이 시행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상복부에 7~8 cm 정도의 최소한의 절개창을 이용하여 위암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수술을 통하여 조기위암에 있어서 충분한 위절제와 림프절 절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기존의 긴 절개창에 비하여 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줄이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.

(대상 및 방법) 2003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 성모병원 외과에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위아절제술 및 림프절광청술을 시행받은 68명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연구하였다. 수술 전 검사(내시경, 전산화단층촬영)로 조기위암이 의심되는 32명의 환자에게 소절개창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36명은 기존의 수술법이 적용되었다. 소절개창을 이용한 32명 환자의 절개창의 크기는 평균 8 cm (6.5~9 cm)이었으며 이 절개창을 통해 견인기를 이용하여 상하 좌우로 견인하면서 수술부위를 노출시켰다.

(결과) 소절개창 수술환자중 29명이 최종 조직검사상 조기위암이 진단되었고 3명은 림프절 전이없는 근육층까지의 침윤이 있었다. 수술시간은 190분(160~250분)이었고 출혈량은 547 cc (300~800 cc)가 측정되었으나 기존 절개창환자와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. 기존의 절개방법처럼 광범위한 림프절 절제는 불가능하였으나 대부분의 2군 림프절의 절제가 가능하였고 병리조직검사상 평균 30개의 림프절을 얻을 수 있었다. 수술 후 재원 기간은 8.9일로 기존 수술법(9.35일)에 비하여 의미있게 짧았으며($p=0.034$) 수술 후 진통제의 사용도 1.1회로 기존 수술법에 비하여 의미있게 적었다($p=0.019$). 자가통증측정에 있어서는 수술 4시간 후, 1일 후, 2일 후, 3일 후, 4일 후 측정결과 5.8-4.9-5.8-4.1-3.0으로 기존의 수술법(6.5-5.3-5.5-5.5-4.3)에 비하여 수술 3일 후와 4일 후에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.

(결론) 본 연구결과 소절개창에 의한 위암의 아절제 수술은 조기위암환자에 있어서 환자의 수술 후 통증경감과 재원기간 단축의 효과를 얻으면서 충분한 림프절 절제를 통한 근치적 수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. 특히 복강경수술에 비하여 복잡한 기구의 사용과 술기가 필요없어 기존의 위암수술 술기로도 쉽게 적응하여 시행이 가능하고 비용절감면에서도 잇점이 있다. 앞으로 더 많은 임상경험과 재발율이나 생존기간등의 추적검사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조기위암의 새로운 수술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.